

2018. 09. 제438호

#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





고창소식(재외군민 무료 우편 발송)을 보내드립니다.

주소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_560\_2327 팩스 063\_560\_233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발행처 고창군청 자치행정과 발행인 고창군수 발행일 2018. 9 디자인 (주)동림개발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한 3/4분기 1회 홍보물입니다.





## 군정 방침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지긋한 향방도 찾을 수 있도록

- 1. 농업생명 식품산업 살려
  - 1. 품격있는 역사문화 관광
  - 1.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키우기
  - 1. 나눔과 봉사로 흥흥한 복지
  - 1. 함께 살리고 잘사는 상생경제
  - 1. 참여하고 소통하는 율력행정
- 고창군수 유 기 상

## CONTENTS

2018 Vol. 438

- 02 시작하며 유기상 고창군수 교수면 방문
- 04 군정특집 민선7기 비전 및 발전 방향 소개
- 12 의회소식 의회 운영 소식
- 15 행정광고 고창문화제 야행 / 국화축제
- 16 고창의 보물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 18 고창 나들이 팜팜시티투어
- 20 경쟁력 있는 기업 아이보리 / 질마채농장 / 힐링푸드
- 23 고창에서 만들었어요 고창소주 / 보리아락 / 파머스맥주
- 26 여성이 희망이다 이앰푸드
- 28 고창, 고창사람 재경고창군민회 김광중 회장
- 30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홍덕초 배구부 (전)국가대표 이성희 감독 / 이상영 명창
- 34 여기, 이곳 선운사 템플스테이
- 36 군정뉴스
- 37 행정광고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운동
- 39 행정광고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안내



# 군민이 군수인 시대

## 자랑스런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이름을 빛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고창군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민선 7기가 본격 출범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변화와 희망, 통합의 시대정신에 따라 군민이 주인인 고창, 함께 울력하며 민주주의의 교과서와 같은 지방자치를 펼쳐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완전히 새로운 고창, 신명나는 고창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유기상 군수의 비전을 살펴보자.



고창군 유기상 군수

### Q 먼저 군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A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재외군민 여러분 '고창소식'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따뜻한 애정과 지지로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사람보고, 정책보고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고창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새로 쓰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그 뜻을 잘 새겨서 군민이 군수인 시대, 군민 여러분을 잘 섬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Q 군수님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두루 섭렵한 행정전문가시잖아요. 37년여 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고창군 수장으로서의 길을 선택한 이유, 궁금합니다.

A 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고위공무원,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일선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거치면서 여러 성공행정사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고 자란 고창,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고창을 위해서 고창의 사람 키우는 일, 문화적인 힘을 키워내서 그것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우리 후배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겠다는 생각과 군민들이 함께 손잡고 대대손손 잘 사는 그런 고창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결심을 했고, 군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캡처하시면  
유기상 군수의 인사말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 재난비상대책 현장점검-고창읍 석고리

**Q 민선 7기 군정 목표가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입니다.  
'한반도 첫 수도' 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요?**

**A** 우리 고창은 선사시대, 거석문화시대부터 세계 최고의 문명이 꽃피웠던 땅입니다. 군 전체에 널리 분포된 고인돌유적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아산면 일원의 만동유적과 봉덕리의 고분군은 마한과 백제시대의 전통성을 대표하고 있고, 삼한시대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토성도 고수면 예지리, 성내면 월성리, 대산면 성남리 등에 존재했고 공음면 칠암리 고분군 등 여러 유물 유적들만 보아도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풍요를 누렸던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문명사적으로 '한반도 첫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고창의 자랑스런 역사, 영광의 역사를 이 시대, 우리 손으로 다시 만들자. 그런 의미로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으로 정했습니다.

**Q 이를 실현할 구체적 계획도 갖고 계시죠?**

**A** 네, 미래 백 년 천 년을 이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을 '농업생명식품산업'과 '역사 문화관광'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세워서 고창이 나아가야 할 지표를 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 농업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농업이야말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생명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려운 한국 농업을 고창에서 살려보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농업생명식품산업 살려'를 구호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고창은 유형, 무형, 자연유산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유형유산 고인돌유적을 비롯해서 판소리와 고창농악 등 무형유산, 세계 최고의 자연유산을 인정받은 생물권보전지역 모두 유네스코가 인정한 매우 가치 있는 자원들입니다.

이 자원들을 잘 엮어서 매력지수를 높이고 한 번 온 분들이 또 찾아오고 싶은 그런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삼은 것입니다.



군정주요사업 현장 방문-도계-석정 국지도 건설공사

**Q 정책 목표 중에 ‘자식 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기’ 가 눈에 띕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A** 고창은 인물의 고창입니다. 그래서 사람 농사를 잘 짓는 고창, 인재를 낳는 땅으로 대표 브랜드를 삼아 나아가려고 합니다.
- 사업을 하나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인재를 키우면 영원히 영향력을 갖고 고창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고창에서 자식 농사지으면 잘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평생 학습도시, 인문학도시, 독서율이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여성 스스로도 능력을 펼치고, 육아와 보육의 부담도 덜어주고, 이렇게 인재를 키우는 데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 예술이나 체육분야에서 스타를 키우면 파급력이 크니까 예술 /체육 분야 꿈나무를 키우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Q 고창군에 당면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 A** 우선 농업생명식품산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수석국으로 만들고 이 분야에 가장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행정의 가장 중심을 농업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을 살리는데 최우선으로 삼아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고창일반산업단지가 오랫동안 풀밭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군민 여러분의 걱정이 매우 큼니다. 소송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걸 정리 해서 산단을 준공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황토배기유통 또한 농산유통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문제, 복분자를 비롯해서 고창의 농산물 브랜드를 다시 살리는 문제에 힘쓸 것입니다.

**Q 소통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A 민주주의의 기본이 소통이잖아요.**

지방자치제도는 도입이 되었지만 실제로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고 군민 참여에 의해서 군정이 이뤄지는 과정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는 군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주어야 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민이 군수다’는 말씀을 늘 드렸고,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군민이 주인인 고창군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또한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진정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정책이 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도 각종 여성위원회 최소 30%이상 참여를 하도록 권장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고요. 사람이 없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을 위해서 군 예산 편성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인 주민주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핵심 공약의 방향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무원, 전문가, 군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했구요. 이렇게 군정의 모든 과정에서 군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주의의 모델, 지방자치의 교과서 같은 참여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모두를 아우르며 공감과 소통 상생과  
협치를 이루어갈 새로운 지휘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 Q 나눔과 봉사와 기부의 천국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A 자랑스러운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의 군민으로서, 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군민들의 참여를 높이려면 우선 군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야 합니다. 고창 사람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늘 고창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 이를 위해서 군민들의 기를 살리자,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애향심이 높은 고창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군민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공공의 힘만으로는 모든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이웃을 찾고, 도움 방법을 찾는 것은 지역사회가 공동의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나눔과 봉사와 기부’운동이 널리 확산되어야 공동체가 회복되고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손길이 골고루 미칠 수 있습니다.





초특우산 어린이재단  
고창군 부안면 주거증축 준공식

‘나눔과 봉사와 기부’는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고창군도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창의 물건을 먼저 사주고, 고창 사람을 키우고, 고창의 기술을 쓰는 일들이 정착되면 군민들의 자긍심도 올라가고 행복감도 커질 뿐만 아니라 고창발전에도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 끝으로 한 말씀해주세요.

- A**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7기 고창군은 자긍심을 가진 군민, 긍정하는 에너지로 충만한 군민들이 주인공입니다. 현장에서 군민 여러분을 뵈고 의견을 듣고, 군민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 군민 여러분과 손잡고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행정을 펼쳐 지방자치의 교과서 같은 고창군을 만들겠습니다. 성공하는 고창군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의 첫 수도 고창’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쓰는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고창군 모든 공직자들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가자. 대한민국 고창시대로...



〈일러스트 제공 : 김남수 화백〉



## 군민과 함께 이뤄갈 즐거운 변화

## 확실한 행복,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군민께 드리는 약속

### 고창 미래 먹거리

#### 농생명 식품산업 살리기

- ◆ 농생명산업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강화
- ◆ 백년대계 안심먹거리 산업 육성
- ◆ 글로벌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품격있는 역사문화

#### 생태 관광 기반조성

- ◆ 고창의 역사문화 콘텐츠 육성
- ◆ 풍부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 예향의 도시
- ◆ 명품 특화관광 기반을 살려 돈버는 관광 실속있는 관광 실현
- ◆ 군민 생활건강 욕구 부응과 레포츠산업 활성화로 관광수요 창출
- ◆ 생물권보전지역과 사람의 가치를 높여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 정착

### 자식 농사잘 짓는 사람키우기

- ◆ 미래 고창을 위한 지역인재 키우기
- ◆ 군민이 설움 받지 않는 교육환경 조성
- ◆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지원 시스템 구축

#### 공약사업명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초강경 농업전략 수립  
청년농어업인 수당지원  
고창 쌀 브랜드 마케팅 추진(통합브랜드 육성)  
고창 삼시세끼 밥상세트 브랜드 육성  
고창황토배기유통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활성화  
해외 수출 맞춤형 명품 농특산물 육성  
스마트 첨단농업 활성화  
고창농산물 브랜드 대도시 프랜차이즈 산업육성  
농어업인 행복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오감만족 삼시세끼 힐링여행 코스 상품화  
고창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  
고창 복분자 명성회복 (활성화)  
생물권보전지역 청정 고창 농산물 고급브랜드화 (수박, 멜론, 김, 딸기 등)  
지역특화 전략작물 집중개발  
귀농귀촌인 전문 특화품목 발굴 지원  
바지락 1번지 육성 프로젝트  
지주식 김 브랜드 육성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동물복지농장 1번지 육성 (청정축산생산환경 조성)

#### 공약사업명

고창의 역사문화 콘텐츠 육성 및 관광 자원화  
고창군 문화관광재단설립  
사계절 테마 관광기반 조성  
고창 레포츠산업 활성화  
동학역사테마관광지 조성  
역사문화유적관광타운 조성  
고창 10선 명품특화관광지 육성  
어린이 자연놀이체험 공간 조성확대  
군민이 만드는 휴 드림 숲 조성  
문수산 힐링휴양림 조성  
인천강 생태체험 관광지 조성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섬" 생태공원 조성

#### 공약사업명

인문학 도시 구축 및 고창학 정립  
여성 친화도시 지정  
초·중·고등학생 복지지원  
지역인재 육성지원  
고창 군립도서관 건립(세대공감 창의도서관 "모양")





## 군민과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실현

- ◆ 군민이 함께 만드는 나눔과 봉사의 복지 공동체 구현
- ◆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 추진
-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고창

### 공약사업명

「나눔과 봉사의 도시 고창」 만들기  
고창 청년 근로 희망키움 통장 지원  
경로 이미용권 지급  
100세 만수무강 동네 큰잔치 지원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  
행복한 노년의 삶 지원  
출산이 행복한 고창만들기  
신생아 출산세트 확대지원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좋은 일자리제공

## 함께 살리고 잘사는 상생경제

- ◆ 전통가치 계승하여 미래가치 지향하는 고품격 도시 인프라 구축
- ◆ 백년 먹거리 농식품생명분야 육성하여 탄탄한 지역경제기반 구축
- ◆ 1차산업에서 6차산업까지 군민 모두 잘사는 상생경제 시스템 구축

### 공약사업명

대한민국 대표 반찬, 식자재, 양념, 식품전문단지 조성  
행복콜택시 지원 확대운영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제도화 및 역량 강화  
읍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특화 산업 육성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휴양자원 발굴·조성

## 참여하고 소통하는 울력행정

- ◆ 상생과 협력으로 하나 되는 고창 만들기
- ◆ 분권 시대에 맞는 고창군 위상확립
- ◆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고창 구축

### 공약사업명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해상자치권 회복  
수요 중심, 미래 지향적 조직 운영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개방형 전문직 채용 확대  
100년 안전 고창실현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운동추진

※ 2018. 8. 31. 기준 공약사업입니다.  
추가 공약사업과 세부추진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고창군의회는 군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화합하고 신뢰받는  
책임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장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캡처하시면  
조규철 군의장의 인사말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군민 여러분!

먼저, 제8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실천  
하는 의정 찾아가는 의회, 화합하고 신뢰받는 책임의회 구현,  
함께 꿈꾸고 더불어 이루어가는 동행의회가 되도록 제8대 고창  
군의회는 군민의 고충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의정  
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더 낮은 자세로 군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회구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라도 빠짐  
없이 듣기 위해 의원 모두가 구석진 자리까지 현장을 일일이  
발로 뛰면서 점점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정활동에 전념  
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지방  
자치의 양대 핵심기관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8대 의회는 다선 의원님의 경륜과  
초선 의원님의 참신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향후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창군의회가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한 차원 승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8대 전반기 고창군의회의 의정방침

- 실천하는 의정 찾아가는 의회
- 화합하고 신뢰받는 책임의회 구현
- 함께 꿈꾸고 더불어 이루어가는 동행의회

## 2018년도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 (9월~12월)

- ▶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강화
  -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강화로 지역현안문제 해결
- ▶ 제1차 정례회
  - 군정질문 및 답변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으로 책임행정 구현
- ▶ 제2차 정례회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9년도 예산안 심의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군정질문 및 답변



# 고창문화재 야행

뿌리 깊은 역사·문화 쏙을 담다

2018. 10. 5 ~ 10. 7  
고창읍성 · 고창읍 일원



주최 / 주관 : 문화재청 · 전라북도 · 고창군 / 고창야행추진단

# 2018 고창 국화 축제

2018. 10. 26. ~ 11. 11  
고창고인돌공원 일원



유네스코 고창 세계자연유산지역  
UNESCO Gochang World Natural Heritage Site



고창군

14  
15



## 알아야 할 고창의 위대한 유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고창은 농민군이 봉건사회와 부패한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보국안민 정신을 천명하는 포고문을 발표하여, 전국적인 혁명의 출발을 알렸던 동학농민혁명 무장 기포지가 있고,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에서 근대 사회와 근대 민족국가의 큰 장을 연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가 있는 곳이며,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근간을 이루었던 손화중 포의 근거지가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고창의 위대한 유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알아보자.

### 고창무장동학농민혁명기포지 [전라북도 기념물 제129호]

1894년 3월 20일(음력) 보국안민 정신을 천명하는 포고문을 발표 하여 지역적 민란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혁명의 출발을 알렸던 곳으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인 현장이다. 매년 4월 25일 기포지와 무장현관아와음성에서 동학농민혁명무장 기포기념제가 개최된다.



### 전봉준 장군 생가 터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 장군이 1855년12월3일(양력1856. 1. 10.)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에서 태어난 곳이다. 체구가 조금 작고 야무지다 하여 녹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전봉준 장군은 1894년 반외세 · 반봉건의 기치를 들고 민중항쟁을 주도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에서 근대사회와 근대민족국가의 근간을 연 장본인이다.



### 선운사 등불암지 마에여래좌상 [보물 제1200호]

도솔암마애불 배꼽안의 비결이 세상에 나오는 날 한양이 망하고 새 세상이 온다는 말이 전해져 왔는데 1892년 당시 무장현에서 포교하던 손화중포가 이 비결을 꺼냄으로써 혼란한 시대적 정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동학농민혁명의 태동을 꿈꾸었다.



### 무장현 관아와 음성 [사적 제346호]

동학농민혁명 당시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이 전라도 각 군 · 현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고창과 흥덕의 관아 건물들이 훼손되었지만, 무장관아는 극적으로 화를 면했다. 여기에는 무장현 출신 농민군의 만류와 함께 농민군에 대거 동조한 무장 서리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 고창읍성 [사적 제145호]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전라도민들이 유비무환의 슬기로 축성한 자연석 성곽으로 모양성이라고도 한다. 동학농민혁명(1894) 당시 정읍 황토현에서 싸워 승리한 후 홍덕현과 고창현을 점령한 농민군은 고창읍성의 옥문을 열어 억울한 죄수들을 풀어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또 읍성 앞에 살며 부정축재를 일삼았던 은수령의 집을 불태웠다.

## 홍성동헌 [지방유형문화재 제77호]

전봉준이 체포되자 고향으로 돌아온 접주 차차구는 입암 마석의 뒷산인 국사봉 토굴에서 숨어 지냈다. 그러나 홍덕 관아에 끌려가 동학농민군과 함께 불태워져 살해되었다. 그의 아들 차경석(보천교 창시자)은 부친이 평상시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닌다는 모친 말이 생각나 불타 손상된 시신을 찾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손화중 도소

손화중 대접주는 1881년 동학에 입도하여 전라도 지역을 대상으로 포교하고 부안, 정읍을 거쳐 무장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동학 포교 활동을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교단의 근거지로서 고창지역 농민군의 세력분포와 활동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이다.

## 왕제산(여시외봉)

무장읍성에서 5리쯤 떨어진 이곳은 표고 152m의 야트막한 산으로 여시외봉이라고도 한다. 뒤에서 보면 낮아 보이지만 정상에 서면 사방이 트여서 전망이 좋아 방어와 공격에 유리한 곳이다. 무장읍성을 점령했을 때 농민군 일부가 이곳에 머물며 진을 치고 재정비를 취한 장소이다.

## 손화중 피체지

고창군 부안면 고잔리 이씨 재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손화중은 그의 동생 익중, 조카 영옥 등이 처형 당하고 전봉준과 김개남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후 산당 재실지기인 이봉우의 고발로 붙잡혀 전주 감영을 거쳐 서울로 압송되었다.

##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동학농민혁명 자유, 평등, 자주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등을 알기 쉽게 설명·전시하고 있다. 홍보관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인 여시외봉에 있는 귀농 귀촌학교(구 신왕초등학교) 1층에 자리하고 있다.

비운의 혁명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대한제국의 사회개혁과 항일운동, 의병전쟁, 3.1운동, 상해임시정부, 광복군 활동,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항쟁, 광화문 촛불시민혁명까지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사람이 가장 귀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숨겨진 동학군의 발자취를 따라 고창동학유적지 역사탐방을 추천한다.

※ 고창군 동학유적지 해설사 신청 안내 : 063)564-1894, 560-2461





시골버스 타고 고창 여행 가자!

##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

토요일 오전 10시, 고창버스터미널 앞으로 멋지게 치장한 버스 한 대가 들어와 스푼스 멈춘다. 외국인 농촌체험객의 모습이 큼지막하게 그려진 버스는 신개념 시티투어버스로 알려진 '팜팜시골버스'다. 고창군 시티투어버스이지만 첫 출발지는 9시 30분 정읍역이다. 기차로 오는 관광객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팜팜시골버스는 농촌관광 중심의 테마형 셔틀버스다.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잘거리로 특화된 팜팜농가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홍보하고 실질적인 고창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획되었고 고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를 시의 적절한 때에 코스에 넣어 탑승객들의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높였다.

지난달엔 블루베리 수확 체험이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블루베리를 양껏 따먹고 일정량은 담아서 가져갔다. 또 농가에서 취급하는 블루베리 가공식품도 추가로 구매하였으니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관광도 알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린 셈이다.

고창읍성에서는 이야기가 담긴 문화유산에 귀가 솔깃하고 울울창창 맹종죽 숲의 자연미에 눈이 호사를 누린다. 고창 사람들만이 아는 매력적인 향토음식과 농가들의 소소한 멋까지, 팜팜시골버스를 이용한 여행자들은 한결같이 엄지손을 치켜든다.

팜팜시골버스의 정식운행은 8월 4일부터였지만 이미 4월부터 월 1회 총 4차례의 시범운영적인 모니터링투어를 통해 농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팜팜시골버스의 정식개통도 널리 홍보하였다.





팜팜시골버스를 운행하는 고창농촌관광팜팜사업단의 김수남 단장은 팜팜시골버스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는 대로 1박2일 프로그램, 고급형 프로그램, 테마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고창 여행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주민여행사'의 설립도 구상하고 있다.

관광은 지역 경기를 견인하는 산업이다. 김 단장은 고창관광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팜팜시골버스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은 '2017 창조지역사업' 공모사업으로 태어났다. 마을공동체가 아닌 농가들을 엮어서 농촌관광을 한다는 점이 첫째 특징이고, 행정에서 농가로의 하향식 단순지원모델이 아닌, 중간에 권역별로 '팜팜스테이션'이라는 4개의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농가들을 관리, 지원하는 시스템이 두 번째 특징이다. 기차역 없는 고창에서 4개의 팜팜스테이션이 방문자센터와 지역관광의 거점역할을 하는 셈이다.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은 팜팜시골버스의 운영 외에도 팜팜스테이션 활성화, <sup>2</sup>다섯꺼리 아카데미, <sup>3</sup>전국브랜드지식 농업페스티벌, 팜팜농가 쇼펍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군민 제도를 도입하여 잠재고객을 발굴한 뒤 충성도 높은 시장으로 활용하자는 사이버군민운동도 처음 주창하였다.

'팜팜(farmfarm)'은 농촌관광사업에 종사하는 고창의 농가들을 뜻하는 브랜드이다.



#### ● 팜팜시골버스 이용법 :

8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운영(추석명절 제외)  
9시30분 정읍역 출발, 10시 고창터미널 출발. 참가비 20,000원  
(버스비, 점심식사, 체험비, 고창음성 입장료, 가이드비, 기념품 등 포함)

● 고창농촌관광팜팜사업단 (063) 563-8808 [www.gofarmfarm.com](http://www.gofarmfarm.com)

- 1) 고창읍성 스테이션, 갯벌 스테이션, 청보리 스테이션, 선운산 스테이션
- 2)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잘거리 다섯 개 분야로 특화된 농가 역량강화 교육
- 3) 2018년은 11월 17일 개최 예정. 전국의 농업인들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경쟁력 있는 기업 아기쌀과자



진심이 자란다\_Since2007

아이보리

엄마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만든  
아기과자



아이보리영농조합법인

문의 : 1522-3051

홈페이지 [www.i-bori.kr](http://www.i-bori.kr)

방문 구입 불가 / 인터넷 구매만 가능

아이보리 대표는 첫 아이를 낳고 이유식 먹일 때가 되었는데, 도대체 먹고 먹일 음식이 하나 없어 너무나도 화가 났고 이 세상이 정말 한탄스럽게 느껴졌다고 한다. 이후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부모님이 직접 재배하신 보리로 보리차를 끓여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와 달리 사골에 연고가 없는 다른 엄마들의 아이들은..? 이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고, 그 생각을 계기로 우리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아이보리 보리차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아이보리의 힘찬 첫 출발이 되었다.

세명의 아들을 둔 아이보리 대표는 자신과 고객들의 약속으로 네가지를 뽑았다.

첫 번째,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 청정지역인 고창에서 생산하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원재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밭로 뛰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첨가물은 최대한 배제하겠습니다.

네 번째, 엄마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아이보리가 설립된 2007년 이후로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진심이 통한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 별다른 홍보 광고나 방송매체에 등장하지 않아도 더 높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아이보리의 아기과자는 단계별 맞춤상품으로 나뉘어져 있다. 아이보리 쌀튀밥, 아이보리 백미쌀과자부터 아이보리 돌돌이원, 아이보리 돌돌이루, 아이보리 귀노아용알이, 아이보리 현미스틱쌀과자, 아이보리 귀노아쌀과자, 아이보리 현미쌀과자, 아이보리 흑미쌀과자, 아이보리 단호박쌀과자, 아이보리 새싹과자가 있으며 아이보리 백미현미빵, 아이보리 잡곡빵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이렇게 정성이 담긴 아이보리 아기 과자는 아이보리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서 구매 가능하며, 구매 후 일주일 이내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등 SNS에 상품 사진과 후기를 태그와 함께 올린 후 감사후기 게시판에 URL 주소를 남겨거나 DM으로 자사ID를 보내주면 적립금(+500)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고를 때마다 엄마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아이의 건강과 입맛을 결정짓는 아기간식을 정하기 위해서는 아기간식의 재료, 성분, 첨가물, 향과 맛까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일반 아기 과자는 지나친 보존제, 조미료, 팽창제 사용, 자극적인 맛 등 심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 선택 구매하기 어렵다.

엄마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질마재 농장에서는 100% 고창 유기농 농산물로 건강하게 만든 아기간식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엄마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질마재 농장은 3대가 흠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농장으로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창에서 자란 순수한 먹거리만을 사용해 인정받기 까다로운 유기농식품 인증을 획득했다. 그 외에도 제조시설 대부분의 위생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농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6개월마다 부적합한 성분이나 세균이 나오지는 않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해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과자에 백미 단호박, 백미 자색고구마, 백미 배, 현미 블루베리, 백미 단호박스틱, 백미 자색고구마스틱, 백미 시금치스틱, 현미 사과당근스틱, 현미 양파스틱, 백미 시리얼, 퀴노아 웅알이 등 차별화를 이루었으며, 더욱 건강하고 다양한 맛을 선보인다.

이처럼 순수한 먹거리를 사용해 제조한 사과자는 질마재농장 홈페이지인 [www.jilmajae.com](http://www.jilmajae.com)에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카카오톡에서 질마재 농장을 친구 등록하면 카카오톡으로 주문 및 상담이 가능하다. 또 질마재농장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를 방문하면 더 다양한 이벤트소식과 질마재농장 이야기, 사과자 활용법, 다양한 후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질마재농장 대표는 “소비자가 알아주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건강한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유기농과자를 만들 것이며, 느려도 천천히 다지면서 오래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실천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 청정 고창에서 자란 먹거리로 건강하게 쓱쓱



### 질마재농장

위치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 422

문의 : 070-4128-1703

홈페이지 <http://www.jilmajae.com/>

<http://blog.naver.com/hmj8060>



## 힐/링/푸/드



### 갓 씻은 쌀로 만든 쌀과자



#### 힐링푸드

위치 : 전북 고창군 아산면 묵동로 88

문의 : 063) 563-8787

홈페이지 <http://storefarm.naver.com/ricepapa>

가족들 먹거리에 대해 고민이 많은 요즘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던 힐링푸드는 식품회사에 근무하며 모든 가족들에게 믿고 먹일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다. 긴 생각 끝에 찾아낸 답은 “내가 직접 만들자” 였고, 그렇게 탄생한 힐링푸드의 아기과자는 아빠가 갓 씻은 쌀로 정직하게 만든 영양간식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위생, 안전, 품질을 회사 원칙으로 삼는 힐링푸드는 음식의 기본은 씻는 것부터라는 청결한 마음가짐으로 원재료 입고, 제조, 보관, 출하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정성껏 노력하며 쌀과자를 만들었고 이 과정을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해썹(HACCP)인증을 받아냈다.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하여 천연 그대로의 맛과 향, 빛깔을 담아낸 힐링푸드의 베스트 아기 간식은 무엇일까? 바로 백미 떡병, 복분자 떡병, 양파 떡병, 사과랑 당근 떡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용알이 쌀과자와 스틱 쌀과자 등이 있으며, 이러한 힐링푸드의 아기과자는 힐링푸드 홈페이지, 쿠팡, 위메프, 11번가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꿀팁은 힐링푸드 홈페이지에서 이달의 할인혜택을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간략한 구매평(5글자 이상)만 남겨도 적립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위생적이고 청결한 공장







고창소주는 과연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서해안북분자주 대표는 북분자주 외에 다른 대체상품을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후 그는 안동 소주와 같은 지역의 특산주를 우리 고창에서도 한 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더 좋은 지역 특산주를 만들기 위해 증류주 소주 면허를 취득하고 최고의 술맛을 제조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거듭했다.

그렇다면 고창소주는 일반소주와 무엇이 다를까? 기존에 나와있는 다른 소주들과 달리 좀 더 깨끗하고 뒤끝 없는 맛으로 다음날 숙취가 덜한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고창소주는 다른 소주들과 달리 증류를 두번이나 하여 차별화를 두었으며, 고창에서 자란 녹차 꽃, 구절초 꽃, 삼지구엽초 꽃, 찔레 꽃, 흰 꽃, 산수유 꽃, 국화 꽃, 모란 꽃, 벚꽃, 아카시아 꽃, 금은화 꽃, 복숭아 꽃, 매화 꽃, 진달래 꽃, 맨드라미 꽃, 백련 꽃, 홍련 꽃, 행화 꽃, 백장미 꽃, 해당화 꽃 등의 꽃으로 빚은 증류주이다.

서해안북분자주 대표는 "고창소주는 하나의 애향으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맛과 향 등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졌기 때문에 명품 지역 특산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고 말하며, "고창소주로 인해 더 많은 수익이 생긴다면 고창소주 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고창 사회에 기부도 하고 싶다" 고 전했다.

명품 지역 특산주 고창소주를 맛보고 싶다면 온라인에서는 서해안북분자주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고창 내 마트에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꽃으로 빚은 증류주 고창소주



고창서해안북분자주

위치 : 전북 고창군 신림면 전봉준로 414-30

문의 : 063) 564-7300

홈페이지 <http://www.bokbunjajuwine.co.kr/>







## 고창 농부가 손수 빚은 세상 단 하나의 증류주 보리아락



농업회사법인 배상면주가고창LB주식회사

위치 : 전북 고창군 아산면 병암길 48

문의 : 063) 563-7756

홈페이지 <https://smartstore.naver.com/soolsool>

우리 술이 속해있는 아시아권에서 '술'과 '술 문화'를 아우르는 최고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기업이 우리 고창에 있다. 바로 국내 최초로 사람의 이름(故배상면)을 걸 만큼 술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애정을 쏟는 배상면주가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에 위치한 배상면주가고창LB는 청정 해풍을 맞고 자란 고창 명품 복분자로 특유의 향과 맛을 그대로 살려낸 명품 술을 빚어냈다.

이는 전국적 인지도와 뛰어난 당도, 몸에 좋은 유효성분, 아름다운 빛깔, 고품질 등을 자랑하는 명품 고창 복분자와 한국 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현 시대에 맞춰 재현하는 배상면주가의 훌륭한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과일과 곡물원료로 끓여 만든 정통 증류주의 풍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복분자 아락, 보리 아락, 배 아락, 오디 아락, 고구마 아락, 느린마을 소주 등 프리미엄 증류주도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다.

'아락'은 땀과 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아라케, 알키 등으로 불리는 증류주의 세계 공통어다.

배상면주가 고창LB에서 만든 '아락'의 여러 제품 중에서도 '보리 아락'은 고창의 기쁜 황토와 해풍, 싱그러운 햇살의 조화를 안고 고창 지역 농부의 손으로 만들어 더욱 특별하다.

세계 최고의 청정지역 고창의 보리를 사용하여 특유의 구수하고 부드러운 목넘김을 느낄 수 있는 '보리 아락'은 쌀로만 만드는 일반 소주와는 전혀 다른 맛이라 보리로 만든 맥주와 소주의 매력을 모두 갖고 있다.

이외에도 배상면주가 고창LB에서는 복분자주에 탄산을 함유해 상쾌함을 부각시킨 저온숙성 탄산 복분자주 빙탄복 등 고창 지역 농가와 함께 다양한 전통주를 선보이며 우리술의 가치를 알려가고 있다.

이 명품술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 온라인은 G마켓, 쿠팡, 11번가 등에서 구매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고창 하나로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기위해 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흔하디 흔한 술들이 지겹다면 오늘 저녁 고창이 가득 담긴 프리미엄 명품 술 보리아락을 추천한다.





단조로운 기존의 맥주 시장 속에서 맥주 본연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특색을 입힌 맥주를 만드는 수제 맥주 기업이 바로 고창에 있다.

고창군 부안면에 위치한 파머스 맥주는 2013년 설립된 프리미엄 수제 맥주 제조 전문기업으로서 20년 대기업 경력의 양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전통 독일식 수제 맥주 제조와 더불어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국산 보리를 이용하여 자체 생산한 맥아를 원료로 하는 순수 국산 수제 맥주도 함께 만들어 가는 맥주 회사이다.

국내 최고의 맥주제조(양조) 기술력을 확보한 파머스 맥주는 2018년 농촌진흥청과 함께 우리 쌀과 맥주 보리를 이용한 국산 수제 맥주를 제품화하고,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한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 아시아권에서 프리미엄 맥주로 불리는 쌀 맥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권 사람들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며, 100% 보리 맥주에 비해 깔끔한 뒷맛과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쌀맥주는 대부분이 수입 맥주이거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파머스 맥주가 선보이는 쌀맥주는 국산 쌀가루(고창, 김제지역) 20%와 국산 보리 맥아 80%를 혼합해 만들어 차별화를 주었다.

이외에도 파머스 맥주는 고창의 특산물을 이용해 메뉴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은은한 홍삼향을 띄는 홍삼 맥주와 복분자 특유의 맛과 향이 맥주에 스며들어 과일의 상큼함이 느껴지는 복분자 맥주가 바로 고창 지역 특산물 대표 메뉴이다.

이외에도, 필스너, 파머스 드라이, 바이젠, 둔 켈, 호밀바이스, 골든에일, 페일에일 ESA, 오토밀 다크에일, K-Ginseng Beer, 인디안 페일에일 등 10가지가 넘는 수제 맥주도 함께 맛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제맥주를 직접 맛 보고 싶다면 고창과 가까운 광주 송정역에 위치한 밀밭 양조장과 상무지구에 위치한 광주 수제맥주 또는 전주소청 앞이나 객사에 위치한 파머스브루어리를 방문하면 맛볼 수 있다



## 향긋한 수제 맥주의 청량감 그대로 파머스 맥주



파머스맥주(고창드림카운티)

위치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434-129

문의 : 063) 561-4225

홈페이지 <http://www.gdcbeer.co.kr/>



## 고창 이엠푸드



## 젊은 감각으로 간간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누리씨는 고창 이엠푸드의 대표 이경수씨 막내딸로 한국농수산대학 특용작물학과에 진학해 농업의 기초를 배우고 졸업 후에는 농업기관에서 전문지식을 쌓으며 후계 농업인으로서 기초를 다진 농업 후계자이다. 보통 농업 후계자라 하면 대부분 남자를 생각하겠지만 이누리씨는 서툰 삼질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농사일을 시작하여 여자는 농사일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며 현재 2년차 농부로 생활하고 있다.

농사를 시작하기 전 농수산대학에서 농업의 기초를 다지고, 4년 동안 농촌진흥청 토양분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농업에 대한 지식을 쌓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너무나도 달랐다.

농사를 하면서 늘 걱정인 기후변화는 이론으로 배워도 막상 닥치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봄도 여름도 기후변화로 가장 생산적기에 가뭄이 40일 이상 지속되면서 농작물에 병해를 입거나 잎이 바삭 말라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한 순간에 농작물이 피해를 보게 되어 그간 노력했던 땀이 빗줄기에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되었다며 농부마음이라는 것이 자나깨나 농작물 걱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사가 늘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이누리씨는 농업에도 여성의 섬세함이 필요하고, 이는 농업이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농사를 짓고 있다.

또 처음 농사를 시작하고 도매가 아닌 직거래로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하면서 수확시기에 유통상인들이 마을을 돌면서 할머니들이 한 해 동안 피땀흘려 지으신 농산물을 헐값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느꼈던 이누리씨는 인터넷 판매를 조금씩 시작하면서 할머니들의 농산물을 제 가격에 주고 구매해 판매하게 되었는데, 적은 양이지만 전부 판매하여 뿌듯했다고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이누리씨는 잘 생산하고 선별한 할머니들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제품으로 생산하고 다양한 가공품 생산을 통해 마을 할머니들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까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만 짓는다고 다가 아니라 봄에는 뭘 심어야 가을에 잘 팔 수 있을지, 팔아준다는 사람은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더 많은 농부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등 농사를 짓고 판매를 하면서 농사는 짓는다고 끝이 아니라 팔아야 끝이라는 것과 함께 성장하며 농사하는 법을 배워가며 당찬 농업인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다.

이누리씨는 1980년대부터 땅콩의 주 특산지였던 고창은 당시 3500ha 이상 재배하고 있던 땅콩의 재배 면적이 현재는 1/10으로 줄어 380ha 정도이지만, 그때의 명성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도록 고소하고 맛있는 고창 땅콩을 생산해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미국의 땅콩박사로 불리는 조지카버 박사처럼 땅콩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땅콩 뿐만 아니라 기능성을 더한 땅콩새싹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더 많은 가공 품들을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고창이앰푸드

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158-17  
(고창I.C에서 500M 앞)

문의: 1577-3062

홈페이지 <http://www.emfood.net/>



## 고창, 고창사람



재경고창군민회 김광중 회장



### Q 재경고창군민회란 ?

A 재경고창군민회(이하 군민회)는 상호발전과 융화단결을 바탕으로 고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창군 출신의 서울, 인천 및 경기 일원에 거주하는 30여만 향우들을 회원으로 하여 1988년 8월 26일 창립총회(초대회장 정인명)를 했습니다. 그뒤를 이어 유승석, 진진형, 백한기, 국기일, 박우정, 신창영, 오성택(현 상임고문), 임정호(현 명예회장) 회장 등을 거쳐 현재 제 13대 김광중 회장이 군민회의 목적과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Q 재경고창군민회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

A ▶ 다음 세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첫째, 4월22일 잠실에서 제 18회 고창인 큰잔치입니다.

1만여 고창인이 서울의 한복판 잠실벌에 운집해서 대화합을 위한 선의의 경쟁 속에서 표출한 기운은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웅비할 우리 고창인의 기세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창인임이 부듯하다는 자긍심을 더욱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삶의 활력으로 작용하면서 애향정신을 북돋우고 다짐하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둘째, 6월 24일의 애향봉사단 발대식이었습니다.

약 600여명의 향우들이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에 모여서 전체 임원진 상견례를 겸한 애향봉사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애향봉사 단원 약 300여명은 그리스 스파르타의 전사를 능가하는 강인한 의지로 애향봉사 활동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한 그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고창의 홍보맨이자 고창 농축수산물을 애용하는 훌륭한 소비자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애향봉사단의 활동 목적은 당연히 고창과 고창인 살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애향봉사단은 ① 고창 농축수산물 애용 및 홍보 ② 고창인 업체 애용 및 홍보 ③ 홈페이지와 밴드에 고창인 초대 및 홈페이지에 등록 대행 등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셋째, 추석선물용 고창멜론 공동구매 프로젝트입니다.

평소 우리 고창에는 명절 선물용 상품이 마땅치 않아서 예전부터 고창군에 명절 선물용 상품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 고창군이 농업기술센터와 농민들이 하나가 되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할 멜론을 만들어 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회는 추석선물용 고창멜론 공동 구매 프로젝트를 추진, 가격 결정 이후 불과 열흘만에 목표 수량 5,000박스를 훨씬 상회하는 6,000박스 이상의 멜론을 주문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회원들의 애향봉사 정신이 아니고는 그 어떤 군에서도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회는 고창 농축수산물의 최고품질 브랜드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Q 김광중 회장님께 고향이란 ?

A 저의 고향마을은 아산면 용계리 용계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운곡저수지 건설로 수몰이 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이향(離鄉)도 탈향(脫鄉)도 아닌, 말 그대로 실향민(失鄉民)이 되고 말았습니다. 휴전선으로 갈린 남북은 언젠가 그 철책을 넘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물에 잠기고만 저의 고향은 갈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고향이란 다른 우리 향우님들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갈 수 있어도 볼 수 없는 마을이기에 저는 그 마을을 고향 전체에서 찾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고향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입히지 말고 살라는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어 우리 고향 사람에게는 그 어떤 피해도 주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고향은 가장 값지고 소중한 곳입니다.

## Q 고향 발전을 위해 고창군민회에서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A 우리 군민회에서 고향 발전을 위해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만 나열 할까 합니다.

첫째, 고향 농축수산물 공동구매 등의 사업입니다. 이번 추석선물용 고창멜론 공동구매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한 내용을 살려 앞으로도 고향 농축수산물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배추나 무를 생산 판매만 하는 1차산업을 지양하고 생산, 가공 및 유통이라는 6차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군민회에서는 고향 농축수산물 공동구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그 외연도 확장할 전략과 전술을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장터의 적극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회는 고향 농축수산물 애용과 전국에 있는 고향인 업체 애용 등을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이미 많은 투자를 해서 재경고창군민회([www.gochanggunmin.co.kr](http://www.gochanggunmin.co.kr))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밴드금요장터를 개장하여 매주 금요일 06시~23시 고향의 농축수산물이나 재가공품을 밴드를 통해 팔고 사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장터를 앞으로도 꾸준히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애향봉사단의 적극적 활동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애향 봉사단은 "고창과 고향인 살리기" 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① 고향 농축수산물 애용 및 홍보 ② 고향인 업체 애용 및 홍보 ③ 홈페이지와 밴드에 고향인 초대 및 홈페이지에 등록 대행 등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애향봉사단의 활동은 입소문과 온라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고향이라는 브랜드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 Q 앞으로 재경고창군민회의 활동 목표는 무엇인가요?

A 고향과 고향인 살리기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꾸준히 추진할 우리 고창군민회의 활동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 고창군을 포함해서 전국의 지방 중소 도시는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양대 기조를 타고 역사상 초유의 인구절벽으로 지방지자체 소멸이라는 절체 절명의 위기가 명약관화 합니다. 우리 고향 고향은 여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고향에 경제가 살아나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과 고향인 살리기라는 지난한 시대적 과제를 우리 군민회의 활동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 Q 고창군민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A 저는 평소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라는 말을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라는 글로벌 경제에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등을 내세우는 가운데, 각종 FTA 등으로 우리 고향을 포함, 전국의 농촌은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고향인이 누구입니까? 품앗이에 바탕을 둔 상부상조의 뜨거운 체온이 그대로 전해지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군민회도 고향 발전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어려운 현실이라고 이래 저래 고민만 말고, 자, 우리 재향 재경의 모든 향우님들, 손 맞잡고 함께 갑시다 !!







**홍덕초 배구부**

## 대한민국 배구의 신화, 이성희 감독



홍덕초등학교의 체육관에서는 요즘 이리 저리 튀는 공소리, 파이팅 넘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밝은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찾아 가본 체육관 안에는 홍덕초등학교 배구부 선수들과 전 국가 대표 이성희 감독이 함께 훈련을 하고 있었다. 국가대표 출신 엘리트 체육인의 시골학교 부임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성희 감독은 어찌다가 작은 시골 학교로 오게 된 것일까? 배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유소년 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성희 감독은 평상시 유소년 배구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중 이성희 감독의 생각을 알고 있던 지인이 상황이 열악한 홍덕초등학교 배구부를 도와 달라며 연락이 왔다. 그리하여 유소년 배구 활성화에 대한 열정 하나로 덜컥 연고도 없는 교창에 내려와 유소년 배구부 감독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하나 없었다. 한 번도 직접 지도 해본 적 없었던 유소년 배구부 감독이라 첫 시작은 낯설었고, 전교생이 7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에서는 선수를 모으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 비해 지원도 많이 부족하고 부모님들의 관심도도 매우 낮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막막했다.

이성희 감독은 엘리트 선수를 만들기 보다는 아이들에게 배구에 대한 희망과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프로팀에 찾아가 프로선수들과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선수들에게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시간도 주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스스럼없이 다가가 아이들과 어울리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더니 어느새 아이들의 분위기는 몰라보게 밝아졌고 스스로 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이성희 감독의 노력과 아이들의 열정이 빛을 발휘해 홍덕초등학교 배구부는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둬 작지만 강한 배구부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아이들이 자만하지 않고 인성이 바르고 자신감 넘치는 선수로 꾸준히 성장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좋은 선수로 활동하기를 바란다며 웃음을 보였다.

이후, 앞으로의 목표로 홍덕초등학교 배구부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더 많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하여 다가오는 평가전에 전라북도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익산 소년체전에 출전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이성희 감독은 모든 선수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스펀지 같은 흡수력을 보여주는 아이들을 배구를 통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욱 높이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 판소리 명창 외길인생, 이상영 명창



1941년 고수면 예지리에서 태어난 이상영 사범은 처음부터 판소리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다. 10세 때 주위 어른들에게 시조를 배우면서부터 소리에 눈을 뗐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곧 잘 흉내 낼 정도의 실력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상영 사범은 자신의 한평생 꿈인 판소리의 꿈을 잠시 뒤로한 채 생계에 매달려 살았다.

하지만 소리꾼에게 소리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는 법, 미친듯이 끌리는 소리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상영 사범은 20살이 되던 해 서울로 상경해 낮에는 옷 짜는 일을 하며 지내고, 밤에는 이 학원 저 학원을 찾아다니며 소리를 배우며 살았다. 그러나 낮에 일하고 밤에는 배우는 일에 한계를 느낀 이상영 명창은 돈 걱정 없이 소리를 배우기 위해 25세 되던 해에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다. 대한민국 내 낯선 타지생활도 힘들었을 터인데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소리에 대한 애정으로 버텼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는 고향을 떠나온 또 다른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며 자신과 동료들에게 힘을 주었다. 3년 6개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나긴 목수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이상영 사범은 소리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다.

이상영 사범은 서울에서 나이 어린 소리 선생님을 모시고 먼저 태평가, 청춘가, 창부타령 등의 민요를 배웠다 한다. 그러다 마침 고향에 동리국악당이 새로 생기고, 조소녀 명창이 강사로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국악당 수강생 1기로 어린 학생들과 함께 소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동리국악당이 배출한 소리꾼 1호 그것이 이상영 사범의 소리에 대한 열정의 결과물이자 첫 경력이 된 것이다.

이후 소리꾼으로서 목구성을 터득하게 되어 소리에 대한 확신을 얻은 이상영 사범은 더 많은 사람들, 더 넓은 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는 KBS, EBS 등 다양한 방송사에 출연했고 전주, 광주, 군산, 정읍 등 인근 도시의 대회에 출전해 상을 휩쓸고 다녔다.

대표적인 것은 2001년 세계 문화 예술대상(판소리), 2007년 황토문화 예술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그동안의 판소리 외길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참 소리꾼이라는 경력이자 선물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상영 사범은 경기민요 1급 자격증을 획득하고 판소리 한국 예술연구 진흥원 국악 전문자격 평가원 급수 2,3급 자격증을 취득해 고창남초등학교 민요 강사, 성송초등학교 판소리 강사, 무장초등학교 판소리 강사, 신림중학교 풍물 강사 등 후임 양성에 힘써왔다.

우여곡절 끝 인생에 남은 것이 오로지 '소리'뿐인 이상영 사범은 고창군 고수면 인성리에 성암국악원을 차려 현재까지도 소리를 듣고 싶거나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 중이다.





## 템플스테이



## 자연 속에서 休

### 템플스테이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푸른 자연이 살아있는 맑고 고요한 산사 그곳에는 우리 민족이 피워낸 소박한 문화와 쌀 한 톨, 한 방울의 물에서 지혜를 찾은 깨달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진정한 행복여행을 찾는 이들에게 템플스테이는 나라와 민족, 문화적 차이와 벽을 넘어 전 세계인을 하나로 잇는 특별한 감동을 전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한국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이제 200만여 명의 세계인이 함께 하고 OECD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 문화상품'으로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체험 콘텐츠로 우뚝 섰습니다.



가족, 학생, 기업, 소외계층까지 우리사회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패밀리 브랜드 "아생 여당"과 함께 새로운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아름다운 자연,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산사에서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 하고 소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단 하나의 행복 여행을 선물합니다.





## 선운사 템플스테이

선운사는 천오백년 역사의 유서깊은 전북지역의 대표사찰(조계종 제24교구 본사)로서 수려한 경관과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는 템플스테이입니다. 선운사 경내에 들어오시면 사방이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포근하고 편안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솔암으로 가는 세 갈래(일부 장애인 통로 설치)의 길 모두가 최고의 산책길이며 도솔암의 마애불, 내원궁의 금동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대웅전 등 6개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숙소의 욕실과 화장실은 현대식이며, 방문 앞 텃마루에 앉으면 앞에 보이는 산의 경치에 매료되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라도 오는 날에는 주위의 산 중턱에 구름이 덮히어 신선계에 와있는 느낌입니다. 행복을 위한 선운사 템플스테이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선운사 → 도솔재 : 왕복 1시간
- 선운사 → 도솔암 : 왕복 2시간
- 선운사 → 천마봉 : 왕복 3시간
- 선운사 → 마애불 → 참당암 → 천마봉 → 도솔암 : 반나절 코스



### 프로그램

예불(저녁/새벽), 참선, 108배, 스님과 차담, 도솔암 포행, 명상, 공양(식사), 뷔페식(채식)

모든 프로그램에 자율 선택/참석이며 단체인 경우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내용, 일정 조정가능합니다.

• 선운사 템플스테이 밴드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ttps://band.us/band/68414624>

### 문의전화

- 주소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 전화 : 063-561-1375(English) / 010-5231-1375(한국어)





## 군정 NEWS

### 역사와 문화 1번지 모양성 마을 만든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 142억 투입

고창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 까지 국비 8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해 농촌마을의 전원 풍경과 도시의 편리한 삶이 어우러지는 '역사·문화 1번지 모양성 마을' 라는 비전을 가지고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업은 크게 ▲거점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분야 ▲기반시설 확충분야 ▲생활편의시설 설치 분야 ▲주민참여 및 역량분야 로 추진된다.

고창군은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센터(가칭: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축 하고 도시혁신 창안대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 역량강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 등 사업 추진에 총력을 쏟는다.

군 관계자는 "품격 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고창군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고 군민 모두가 상생하면서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고창의 자랑거리 100선 공모’ ... 10월 31일까지 최고·최다·최대·최초 등 고창의 숨은 보물 찾아주세요!

오랜 기간 축적된 유·무형 자원의 재발견을 통하여 지역을 재인식하고 브랜드가치를 제고 하기 위한 ‘고창의 자랑거리 100선 공모’ 가 진행 중이다.

공모내용은 유·무형 문화자산, 인물, 건축물, 고창만의 최고·최다·최대·최초 등 그동안 군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고창의 자랑거리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고창을 사랑하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100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응모신청은 이메일, 직접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공모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자치행정과 군정홍보팀 (063-560-2326)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 대한민국 고창시대 만들기

###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군민운동!

(고창 氣 살리기, 사(4)기 높이기!!)

01

#### 고 창 氣 살리기

- 고창 주인의식 심기
- 고창 자랑스러워 살기
- 고창사랑 운동하기  
- 향우회와 함께
- 살맛나는 고창 만들기
- 칭찬하고 박수치며 살기



02

#### 고 창 사랑하기

- 고창 알고 사랑하기
- 고창 물건 사기
- 고창 기업 키우기
- 고창 사람 고용하기
- 고창 업체 이용하기



03

#### 고창인재 키 우 기

- 자식농사 잘 짓는  
기반만들기
- 고창사람 먼저 키우기
- 고창사람 먼저  
기회주기
- 고창인재 후원하기
- 내고장 학교 가기



04

#### 함께하며 나 누 기

- 나눔과 기부 가치  
공유하기
- 자원봉사 생활화 하기
- 이웃 먼저 배려하기
-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
- 자리아타 정신 심기



고 창 군



#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 생활쓰레기는 이렇게 내 놓아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을 준수합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무명봉투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시간 : 일몰 후 20시 ~ 익일 05시까지

##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 류   | 배 출 요 령                     | 주 의 사 항                      |
|-------|-----------------------------|------------------------------|
| 생활쓰레기 |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br>저녁8시 이후에 배출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br>포함되지 않도록 함  |
| 대형폐기물 | 읍·면사무소에 배출신고                | 배출일 및 장소를 신고해야 함             |
| 재활용품  | 무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br>포함되지 않아야 함 |
| 연 탄 재 | 무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무로 수거 처리                     |



누구든지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아 쓰레기불법투기로 적발  
되었을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 상담 내용

### 채무조정상담

- 개인파산 및 면책 무료지원
- 개인회생 무료지원
- 개인(프리)워크아웃 연계
- 서민금융지원안내

### 재무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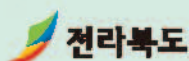
- 재무건강상담
- 수입, 지출 관리를 통한 수지 균형
- 재무구조 개선 및 설계

### 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에게 정부·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안내

###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상담

- 채무자 대리인 및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 ※ 예산 범위내 사회배려대상자



서민금융복지센터

<http://jbgfwc.or.kr>

고창 이동출장소 상담시간

매월 둘째, 넷째주(목요일) 10:00 ~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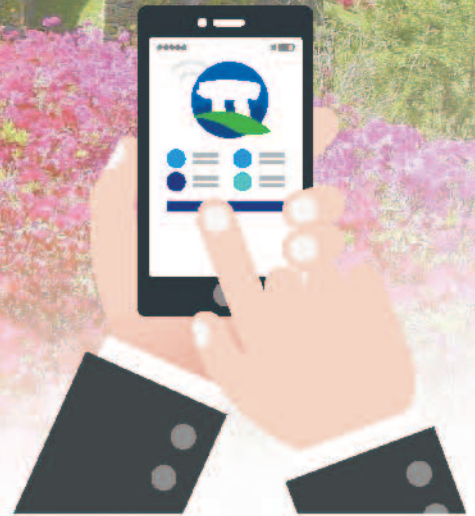
전북센터 T.063) 230-3390 F.063) 230-339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그리운 고향소식 핸드폰으로 편하게 보자!!

가슴 속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고창,  
궁금한 고향소식을  
**핸드폰 카카오토리**를 통해서 받아보세요.



**01**

**카카오토리 실행**

**02**

**고창군 검색**




**03**

**고창군 스토리 선택**

**04**

**고창군 스토리 채널 소식받기**

카카오토리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에서도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gochangcounty>
-  <https://twitter.com/topgochang>
-  <https://blog.naver.com/topgochang>





고창북아출현 kf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한국수목재연구소 전북